

□ 서 평

‘전통’과 ‘근대’의 변모: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문학과지성사, 2004)

미야가와 타쿠야(宮川卓也)

서울대학교

1990년대 이래 ‘제국주의 과학(imperial science)’이나 ‘식민지과학(colonial science)’이라는 주제는 과학사학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바살라(George Basalla)에 대한 재조명으로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및 식민지과학 연구는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전반까지 세계를 휩쓴 제국주의 국가들이 행한 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럽 중심의 역사서술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당시 식민지에 살았던 피 지배자들의 능동성이 강조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쪽에 기울지 않고 양쪽 시각을 갖춘 많은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호황을 이루고 있다. 즉, 처음에 식민지과학 연구가 활발해졌을 즈음에는 제국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식민지라는 주체가 연구대상에서 배제되는 불균형한 연구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식민지조선에 대한 연구의 경우 역방향의 불균형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영향 때문인지 피지배자의 시각을 가지고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능동적 모습, 주체적 과학 활동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조선을 포함한 식민지에서 일본제국과 일본인들이 행한 과학은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깊이 연구할 대상이 되지 못했던 형편이었다.

의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지하듯이 식민지시기 조선에서는 고등 과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소위 이공학 분야보다 의학 전공자가 많았고, 특히 박사학위 취득자는 의학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 늘 억압과 차별을 가하는 ‘일제’의 지배 속에서 조선인들이 능동적으로 의학을 공부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 의학자들이 식민지조선에 와서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6세기 이후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조우하는 과정을 다룬 이종찬의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는 중국, 일본, 조선에서 서양의학에 대한 각각의 반응과 수용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 곧 연구경향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책에서는 전통의학과 근대의학의 의미와 그 관계, 식민지에서 “발명된” 전통(의학), 민족주의와 의학, 현대의학이 안고 있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각국사가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큰 틀 속에서 의학교류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세계사의 흐름과 동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에서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선행연구와 제국·식민지의 의학 및 의료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2장에서는 동양의학의 기본 사상을 다루며 서양의학과 차이를 살피고 있다. 다음으로 3장에서 5장까지는 중국·일본·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서양의학 수용과정을 다루면서 각국마다 드러난 차이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전통’과 ‘근대’가 지닌 문제, 그리고 그것이 현대의학이 지니는 문제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3, 4, 5장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3장은 중국에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만남을 묘사한 부분이다. 3장을 통해 저자가 강조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의학을 둘러싼 헤게모니 경쟁과 대립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명말에 예수회는 원활한 선교활동을 위해 과학을 이용했으며 의학도 그 일부였다. 그러나 원래 선교를 목적으로 했던 선교사들 사이, 예수회 내부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곧 선교보다 의료와 의학 자체를 우선

해야 할 임무(mission)로 생각하고 예수회와 대립하는 선교사들이 나타났음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사람들이 급증했고 그들은 귀국하고 나서 여러 단체를 설립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배운 이들과 구미에서 배운 이들 간에 대립이 있었고, 1930년대에 통합될 때까지 그 대립은 지속되었다. 이들 서양의학을 배운 중국인들은 ‘의학의 근대화’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신전통주의의 유행에서 힘입어 전통의학의 복권을 꾀한 전통의학 종사자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모택동(毛澤東)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중국의학의 과학화와 대중화’라는 슬로건을 제고하여 ‘전통의학’의 부흥을 도모했다. 이와 같은 동서 간, 때로는 서양의학 전공자들 사이의 대립 과정에서 ‘전통의학’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명’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4장에서는 16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서양을 ‘발견’한 일본이에도 시대와 메이지 시대를 통해 서양의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자세히 논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된 점은 『해제신서』의 번역 과정에서 잘 보여주듯이 일본인들이 스스로 서양의 학서를 번역하고 의학지식을 일본어로 재구성하고 또 그러면서 일본어 자체를 정립하려 한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수용태도와 “진지한 노력”이다. 저자는 이러한 태도는 중국이나 조선과의 뚜렷한 차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에서는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선교사들이 번역을 맡았다. 조선에서는 번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 서적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서학을 수용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의 무역 관계에서 수용된 의학은 처음부터 공리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의 천황제와 제국주의적 정책과 이념적으로 맞아떨어져 제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된 모습이 선행연구와 당시 주요 인물들의 사상이 담긴 자료를 중심으로 잘 묘사되고 있다.

5장에서는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19세기 말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한 모습과, “중화적 세계”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한 조선인들의 소극적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저자는 조선을 이 책을 통해 시종일 관해서 인용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대상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저자의 시각은 제증원 설립과정을 서술하는 데에도 드러난다. 기존 연구들은 기존 연구들은 제증원에 대해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논하거나, 당시 조선인들의 서양의학을 수용하려는 적극적 태도의 상징처럼 묘사해 온 데 반해, 이

책에서는 제중원 설립에 관여한 선교사들이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시각으로 그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조선이 일본에게 ‘근대의 실험실’이었고 식민지조선에 세운 병원이 “제국의 ‘경계선’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공간으로 기능했다고 하는 저자의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주장은 조선인들의 수동적 모습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선에 대한 서술에서는 저자가 당시 조선인들이 무식하고 무능력하기만 했다고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일본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으면서도 조선인들은 일본이나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 서양과학을 받아들이며 했고, 전신사업처럼 일부 실행으로 옮긴 사업들도 있었음은 기존 연구들이 제시해 왔다. 물론 의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중원의 설립은 조선인들이 서양의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지만 가능했지 선교사들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상황에서는 제국의 힘이 주도적으로 작용했을지라도 그곳에 식민지 사람들의 작용이 아예 없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의학이나 의료처럼 사람의 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학문에서 치료를 받는 조선인들의 반응은 의료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저자의 견해는 결과론적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제국과 식민지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특히 영제국과 식민지 인도에 관한 연구 등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를 다룬 3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초기에 서양의학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빠져 있다. 이는 물론 자료의 유무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자료가 비교적 남아 있는 20세기는 비록 영어 중심이긴 하지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중국인들의 반응과 활동을 상세히 서술되고 있어 저자가 말한 대로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양의학이 중국에 진입한 초기 역사에서 그러한 “유기적” 관계가 보이지 않은 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는 아쉬운 점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자료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 책이 간행된 2004년 시점에 한국과 일본에 전혀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각주도 많고 풍부한 참고문헌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저자가 강조한 유기적 책 읽기가 적잖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동시에 자료가 영어 문헌 위

주로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서양의학을 가져온 선교사들의 시각을 살린다는 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서양의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왜곡시킬 위험성도 없지 않다. 저자 자신이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언어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어와 중국어 문헌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했다면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저자가 6장에서 펼치고 있는 논의들은 앞으로도 깊이 따져보아야 할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발명된 전통의학’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각광받아 현대 주류의학에 대한 대체의학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는 오늘날 현대의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임과 동시에, 1945년 이전과 이후의 단속성과 연속성을 생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6장에서 저자가 제기한 다른 문제로 ‘전통’과 ‘근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앞장까지 저자가 거듭 강조하듯이 동양에서는 서양근대의학을 만나면서 ‘전통’이 ‘발명’되어 왔다. 전통이 ‘발명’되는 과정은 중국의 경우, 유럽이나 일본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이 서양의학의 대중화를 강력히 내세웠을 때와 모택동이 공산당을 이끌면서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과학적 중의학’을 외쳤을 때의 두 번에 걸쳐 ‘전통의 발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도 미국 선교사들이 한반도 각지에 병원을 세웠을 때와 일제가 병원을 통한 제국의 경계선 확대를 꾀했을 때 ‘전통’은 ‘발명’되었다. 이처럼 ‘전통’은 계속 ‘발명’되거나 ‘창조’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때 저자가 던진 질문은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전통’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근대’와의 긴장 관계 때문”인데, 그렇다면 “‘근대의학’에서 ‘근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소위 ‘근대’ 시기, 제국주의와 식민지를 연구하는 이들이 항상 캐물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저자의 답은 다음과 같이 단순 명쾌하다. “마치 ‘전통의학’도 동아시아에서 ‘발명’되고 있는 것처럼 ‘근대의학’도 ‘발명’되고 있다.” 물론 이 문제, 곧 ‘전통’과 ‘근대’의 의미를 따지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의학에서만 ‘전통’과 ‘근대’가 ‘발명’되고 그 모습이 바뀌어 가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근대’의 성립과정에는 식민지의 존재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내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모든 ‘근대’는 ‘식민지근대이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을 정도이다. 이를테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쳐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에는 주변에 늘 식민지가 ‘실험대상’이

나 ‘자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더불어 일본 국내에서도 ‘국내 식민지(domestic colony)’가 형성되기도 했다(특히 홋카이도와 오키나와가 그랬다). 의학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일본정부와 지식인들이 서양의학의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가장 먼저 ‘실험대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일본국민들이었다. ‘신체의 식민화’, ‘신체에 대한 규율과 감시’는 먼저 자국의 국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와 논의를 끌어낼 수 있는 이 책을 읽은 우리는 머리말에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질문이란 첫째, “의사학(醫史學)은 서구와의 만남을 통한 ‘동아시아의 세계화’를 이해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이며, 두 번째 질문은 “부분사로서의 의사학은 동아시아의 전통과 근대를 이해하는 데 전체사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 나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답에 이르는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야 말로 이 책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한다.